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1.04.02.

1. KCGI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한진그룹의 재무구조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한진그룹은 수많은 유휴부동산과 부실 계열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고, 핵심기업인 대한항공의 부채비율이 1,200%를 넘어서 투자자들의 위기의식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주주 일가의 부적절한 행위 및 항공기와 엔진 도입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수령 혐의가 논란이 되면서 주주, 채권자, 직원 그리고 국민들 모두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2. KCGI는 한진그룹의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1월경 한진그룹에 수차례에 걸쳐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한진그룹의 경영진은 이를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KCGI는 동일한 문제의식과 한진그룹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주주들을 모아 "주주연합"을 구성하였고, 분산된 지분구성, 입증되지 않은 후계자, 오너 중심의 독단적 경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문경영체제 도입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절차상 주주권 침해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두차례 증자로 재무구조는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IT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세계항공물류 3위, 여객 5위의 인천공항의 위상을 감안할 때 통합 항공사 출범은 엄청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형항공사 통합은 KCGI가 2019년 아시아나 인수에 참여시부터 일관적으로 주장해온 사안입니다.

2020년말 3자배정에 의한 산업은행의 증자참여로 적은 지분으로 독단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던 현 한진그룹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와 견제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 KCGI는 어제 일자로 합의에 따른 주주연합간의 공동보유계약 해지를 공시하였으나, 앞으로도 한진그룹의 기업거버넌스 개선과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주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협력하여 필요시 언제든지 경영진에 채찍을 들 것입니다.

그리고 한진그룹의 지배구조개선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진의 올바른 결정에 대해서는 지지를 할 것이며,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로서 견제와 감시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한진그룹 더 나아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 발전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미약한 힘이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이 웹사이트 방문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제시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기술적 오류나 인쇄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정보 제공 후 상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의 정확도, 완성도, 신뢰도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으며, 본 자료에서 최신의 내용을 유지할 의무는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귀하의 이익과 관련된 결정상의 참고자료로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에서 제공된 정보와 관련된 모든 손실, 손해(간접, 특별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는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본 자료는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의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 등은 할 수 없습니다.